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2

2018.11.11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
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
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
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
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
르라 하시니 _마가복음 10:21

오늘의 주요기사

- 2 2018 설문조사 특집/성서이야기
- 3 교회 소식
- 4~5 2018 통일선교바자회 화보
- 6~9 창립30주년 기념 지상토론
- 10 사역 소식
- 11 공동체 소식
- 12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 11/11(주일) 정기당회
- 11/15(목) 수능일, 수능기도회
- 11/18(주일) 사역박람회, 결혼예비학교 개강
- 11/25(주일) 사역박람회, 11월 새가족환영회
- 11/28(수) 겨자씨인도자교육 2학기 종강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dvt.org

주님의교회



“어울링더울링 통일 한마당!”

2년마다 열리는 통일선교바자회가 2018년 10월 20일 정신학원 교정, 주님의교회 로비와 앞마당, 주차장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선교바자회는 이 땅이 통일되는 꿈을 품고, 남북이 하나되어 예배를 드리는 날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통일의 장이다. 이날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성도들의 기증품과 기획상품, 협력단체 상품과 먹거리로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펼쳐졌다. > 관련기사 3면, 화보 4~5면. 함즐함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2019년 교회 표어, 10월 26일 열린 정책 당회에서 확정

2019년 교회 표어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로 정해졌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5~7)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2019년 표어는 이후 예배와 목회의 중점적인 목표로 실천될 예

정이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먼저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배움과 익힘, 나눔을 통해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이 표어의 중심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하

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지향한다.

가정 양육을 돕기 위하여, 가정에 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 청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유·유·청·청 리바이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회의 10년 표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막1:15, 눅4:43, 마6:33)이다.

함즐함울

2019년 정책당회 열려

지난 10월 26일 교회 대회의실에서는 2019년 교회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책당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당회에서는 2019년 표어가 발표되었고, 각 위원회 별 목회보고와 기획위원회 보고, 조직 변경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예배의 활성화 방안, 음악전문 사역자의 교회내 발굴, 양육클래스의 토요 강좌 강화 및 일요 강좌 개설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예수친구사역과 12단계 성경 연구는 폐지되며, QT사역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육분과의 가정사역부, 아버지학교, 결혼예비학교는 신설될 뷰티풀 페어

런팅 센터로 이관된다.

기존 선교위원회는 ‘선교, 구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 사역을 전담한다. 또한 기존의 미디어 위원회를 확대하여, 교회 역사와 미디어,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사역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함즐함울

창립 30주년 기념 |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청소년 사역의 진정성에 대하여

주님의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고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며,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을 실천이념으로 정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사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소년 사역(1188명, 63%), 구제(318명, 17%), 선교(279명, 15%), 기타(88명, 5%)의 순서로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가 정신학교 안에 위치해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건물

무소유(875명, 43%), 청소년 사역(564명, 28%), 넉넉한 주차장(271명, 13%), 교회행사와 주일학교를 위한 운동장(249명, 12%), 학교와의 관계(67명, 3%) 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이 건물 무소유에 비해 낮음을 보였습니다. 즉, 실천이념으로서 ‘예배당의 무소유’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그에 수반되는 최선의 사역으로서 ‘청소년 사역’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보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진정성에 대하여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 1,188명에 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55%, 여자 응답자는 59%, 남자 응답자는 47%, 신앙생활 11년 이상인 응답자는 55%(11년 미만은 47%), 항존직 응답자는 57%(비항존직은 55%), 사역을 1개 이상을 하는 응답자는 61%(사역을 안하고 있는 응답자도 51%), 십일조를 하는 응답자는 59%(십일조를 안하고 있는 응답자도 53%) 등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즉, 어떤 각도로 보아도 50% 이상이 청소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응답자 일수록 청소년 사역을 더 중시 여기

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교회 교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청소년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대50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사역을 선택/집중하라는 응답자(881명)의 57%, 내뱉을 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204명)도 51%에 이르는 것을 보면, 청소년 사역은 선택과 집중, 내뱉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심층분석을 통하여 주님의교회의 교인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변치 않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함줄함울

성서칼럼 돌부리

부자 청년 1(마가복음 10:17-22)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던 중이었다. 한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예수께 달려 나온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는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짐짓 모른 체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심하게 십계명의 몇 대목을 언급하신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모든 걸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젊은이의 당돌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극빈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네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 말에 슬픈 표정을 짓고 근심을 하며 돌아간다. 자신이 가진 걸 다 포기하고 예수 무리에 합류하기엔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 - 양심의 습격

이 젊은 부자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 위에서 있었던

단순한 해프닝처럼 여겨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질문했고, 도저히 그 대답대로는 하지 못하겠어 실망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것처럼 갑갑한 표정으로 예수께 달려 나왔을까? 예수께서 보증하시지만, 이 부자는 위선자나 파렴치한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실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었다(마가복음 10:21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던 모범적 신앙인이었던 이 부자는 왜 그렇게 갑갑하고 곤고한 표정으로 예수께 달려와 물었던 것일까? 이 부자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자기만족적인 것만도 아니었다. 그는 예배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하였다. 마태복음 버전의 이 이야기에서는 그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요체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의 모범적 삶과 신앙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낮에 거울을 보며 자기 스스로 되물어봐도 잘 하면 잘했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었

다. 더 어떻게 하겠는가?

정직한 많은 사람에게 그랬듯, 위기는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의 깊은 곳에서 소곤거려던 양심은, 모두가 잠든 밤에 또렷하게 모습을 갖추며 그를 습격한다. 위선자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양심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물론 네가 아는 누구보다 네가 잘했을 지도 몰라. 그러나 여전히 네 문 앞에 앉아 떨고 있는 저 거지는 누구지? 네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때, 불과 담 하나 사이에 두고 길에서 배고픔에 떨며 인생을 저주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말야. 넌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하지.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며 감사하고 있지. 그런데 저 거지와 병자와 하루하루 사는 걸 걱정하는 길에 넘쳐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너는 정의롭고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네가 가진 것, 네가 누리는 것들이 다 저들의 고통과 눈물의 산물이 아니더냐? 하나님 향해 곱게 모은 네 손이 정말 깨끗하냐?”

이런 불면의 밤을 지낸 날이면, 부자 청년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며 선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더 노력할수록, 더 많은 밤들을 양심의 습격으로 지새게 된다. 무릇 양심의 소리란 진실하고자 할수록 더 거세지는 법이니 말이다. 그 많은 밤을 지새던 어느 날 아침엔 아마 이런 일도 겪었을 것이다. 어제 그가 베푼 잔치에 와서 밥한 그릇 얻어먹고 감사하며 꾸벅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던 거지가 문 앞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이다. 뭐 어쩔 수 없다. 길에 있는 그 많은 빈민과 거지들을 다 거들 순 없으니 말이다. 답답한 표정으로, 그 날 역시 평소처럼 기도하려고 앉아 무심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다. “나와 내 가족을 이 겨울에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자기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무언가 어긋난 것만 같은 이 낯선 질감을 자각한다.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나고 구역질이 났던지! 이런 밤들이, 이런 아침들이 그를 길 가시는 예수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예수께 달려와 다짜고짜 묻는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손경민 전도사

교단 소식 |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2019년 교단의 주제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로 정해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9월에 발간한 <제103회 총회주제해설>을 통해 교단의 총회 주제를 상세하게 밝혔다. 이 해설집에 의하면, 예수교장로회 교단은 2015년 100회기를 맞아 종교개혁 5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교회사적, 시대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4년 동안의 총회 주제 방향을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라는 뜻을 살려서 하나의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결의한 바 있다.

이런 결의의 배경에는 쇠퇴하는 한국 교회의 현재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해설서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면에서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의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모두 약화되고 있다. 영적 생활이 약해지니 전도의 동력

이 상실되고 있으며, 교회와 교단이 분열되고 성장제일주의, 기복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남북 분단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싹이 솟아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이요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민족의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다. 이와 같이 이번 표어에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맞아, 영적 부흥으로 영적인 역동성을 회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외적으로는 3.1 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함글함글**

사역 소식

2018년 사역박람회 개최

올해 사역박람회가 18일과 25일 2주에 걸쳐 개최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꼭 필요한 사역팀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하여, 신청한 부서만 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할 손길을 기다리며 공동체 모두가 사역에 참여하는 1인 1사역 시대가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함글함글

날짜	위원회	부서
3번째주일 (11/18)	청소년 분과 위원회	교육지원2부, 팝콘트리중등부, 비전트리 고등부
	어린이 분과 위원회	하임, 하늘씨앗, 싹트네, 담쟁이, 포도나무, 햇살뜨락, 아름드리, 아기정원, 어와나, 교육지원1부
	젊은이 분과 위원회	행정, 중보지원, 사역부
	예배 분과	중보기도
	봉사 분과	주차
	국내선교 분과	전화상담부
	전문선교 분과	비전 워십팀 성극부
3주(11/18) ~ 4주(11/25)	음악 분과	샬롬(3부) 찬양대
		호산나(1부) 찬양대
	청소년사역원	학원선교(기도,사랑어머니)
	섬김과나눔	죽배달
4번째 주일 (11/25)	장애인복지 분과	사랑나무
	봉사 분과	커피
		도서실
	EM 분과 위원회	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
	전문선교 분과	호산나무용부
	해외선교 분과 위원회	해외선교지원, 선교기도, 비전트립지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주, 유럽,아프리카팀, 주한외국인선교부
	통일선교 분과 위원회	통일선교지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대외활동지원
	국내선교 분과 위원회	군경선교, 서부선교, 동부선교, 기관선교, 의료선교, 주한외국인선교, 복지부, 전화상담부, 전도부

사역 소식

통일선교 바자회 : “어울링더울링 통일 한마당!”

주님의교회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통일선교바자회가 이 가을에 “어울링더울링 통일 한마당”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통일선교바자회는 이 땅이 통일되는 꿈을 품고 남북이 다시 하나되어 예배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눔을 실천하는 통일의 장입니다. 올해에는 가을이 빨갛게 익어가는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신학교 내 주님의교회 로비와 앞마당, 그리고 주차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판매한 품목은 크게 성도들의 기증품과 기획상품, 협력단체상품과 먹거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증해주신 물건들이 로비와 앞마당에 가득 진열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운영본부에서 직접 기획한 기획상품도 있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에서 판매하는 지역 특산물도 마련되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는 육개장, 만두와 찜빵, 해물파전, 어묵과 떡볶이, 커피와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음식코너에서는 두부밥, 인조고기밥, 아바이순대, 녹마전과 북한 온면 등이 준비되어 장차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북한음식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통일소망 솜사탕과 통일꿈 풍선아트 코너가 인기였고, 또 통일선교 관련 전시회와 탈북자 출신 가수의 특별공연 등이 기획되었습니다.

통일선교바자회는 통일선교분과 위원회에서 주관하지만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통일선교부원뿐 아니라 권사회와 여전도회, 안수집사회와 남선교회, 교구 봉사자와 교회 직원 분들, 주차봉사부와 너나들이 남북 청년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적극 동참하여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로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약 2천2백여 만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바자회 후에 남은 옷가지와 물건 45개 마대 분량은 모두 필요로 하는 관련단체 네 곳에 각각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자회의 모든 수익은 해외에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동포

를 구출하는 일과 국내에서 힘들게 탈북민을 섬기는 공동체와 사역단체에 잘 전달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전달 내역은 함글함글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이 또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로 순환되어 되살아났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이 땅에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품고 살아가는 통일의 민족, 하나되는 교회가 되어 여기에서 진정한 살롬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준 목사 / 통일선교분과 위원회

2018년 10월 20일 주님의교회 로비와 주변 공간에서 열린 통일선교바자회. 통일은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날의 행사는 소박했으나 모두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할 그날을 위해 땀흘렸다. 함께 평화를 꿈꾸었던 현장을 확보로 꾸몄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줄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❸

정치,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 기독교인의 소명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세 번째 글은 성서학자이자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장으로 재임중인 권연경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번 인터뷰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수록하여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제 순서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권연경 교수는 성서학자이자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풀러 신학교와 예일 대학교 신학부를 거쳐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갈라디아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전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로마서 산책>(복있는사람), <갈라디아서 산책>(복있는사람), <행위 없는 구원>(SFC출판부), <내가 읽는 것을 깨닫노>(SFC출판부),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선교회), <일상, 부활을 살다>(복있는사람),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뉴스앤조이), <위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IVP), 공저로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새물결플러스), <노동하는 그리스도인>(대장간), <성전과 예배당>(대장간), <칭의와 정의>(기독교연구원), <터닝 포인트>(뉴스앤조이),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대장간), <한국 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대장간), 공역으로 <IVP 성경신학사전>(IVP), <예수의 정치학>(IVP), 역서로 <기독교와 문학>(크리스찬다이제스트), <고린도전서>(SFC출판부) 등을 펴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1월 2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강실에서 함줄함줄 팀 몇 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래 전 주님의교회에 한 해 정도 다닌 적이 있고, 지금도 인척 중 몇 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웃음)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분이었군요. (웃음) 교수님께서 성서학자로 여러 통로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일과, 이해한 바를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집필과 강연, 또 한때는 방송 출연까지 하시면서 노력하신 바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사회라는 큰 관점에서, 특히 이번에는 ‘정치’라는 어려운 분야에 대해 여쭙어보려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 차원에서의 정치/정치 행

위란 무엇인가요?

‘정치’라는 말은 정의하기 나름이지요. 사적인 관계에서도 ‘정치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넓혀서 사회제도와 관련해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에 대한 모든 관심과 행위를 정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정치적인가요? 만일 정치적이려면, 혹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요? 정치의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성서는, 예수는, 바울은, 그리고 지금-여기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가/정치적으로 되어야 할까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정권 창출을 위한 정당의 활동이나 국가 권력의 통치 행위도 정치이지만, 동시에 부당한 권력에 대한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나 시민의 불복종 같은 견제와 저항 역시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적인가 묻는다면 당연히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이 정치적이려면 그 속에 사는 교회도 정치적인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와 관련하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과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주후 6년 이후 로마제국의 속주 통치 아래 놓여있었고, 이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토착 세력인 헤롯 일가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태도, 그리고 로마제국의 시민으로 이방 선교를 하며 살았던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와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하고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이라고 말

할 만한 행동이었는가 물어본다면 답은 당연히 그렇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정치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국가 권력의 핵심들이었고 어느 정도 자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대표적인 반역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현실적인 나라 사이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간주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결국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정치적인 혐의를 깊이 넣어서 로마의 통치에 위해를 끼칠 자라는 혐의를 제시하는데 정작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요.

바울의 경우는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정치적인 관심을 보였던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자체가 정치적 상황을 전제했었고,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 자체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때에는 정치적인 함의 없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바울이 얼마나 정치적이냐고 물을 때에는 당연히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대 사회에서도 해당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는 당연히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이스턴은 체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메시지를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상황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독창적으로 상상하는 능력과,
새로운 상황에 과감하게 그 메시지를 연결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 배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얘기할 때, ‘가치’란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배분되는가, 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이나 행위를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정치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대할 때, 마치 재판장과 죄수의 입장이 바뀐 듯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반역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풀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빌라도를 당혹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자체의 독특한 언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언어를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비정치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주의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치적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적응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저항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저항하는 쪽을 택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제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막으로 가는 등의 양상을 보였지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사람들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과 부딪힐 때 부딪힘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부딪히려 한 것이 아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자체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전제로 하되, 우리는 예수님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폴리스적 존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적 움직임인 정치가 구현되는 각 시대의 정치체제란 언제나 역사적입니다. 즉,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정경화된 성서를 경전으로 삼는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정치체제의 역사적/현재적 측면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고대에 씌어진 성경 텍스트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 사이의 거리를 재는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그 역사성을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체계 속에는 성경의 배경으로 작동하는 역사적인 우연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시되는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필연과 당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나 과제인 셈입니다.

정치체제를 논의할 때에는 당연히 당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정치를 말할 때에도 당시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두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와 당연히 같지 않으므로, 역사적 맥락과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민의 참여일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례가 드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 어느 쪽이든 참여의 가능성을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분들도, 태극기를 든 분들도 광장에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에 대한 묘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성경이 참여를 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차이를 바탕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메시지를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상황의 차이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상황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독창적으로 상상하는 능력과, 새로운 상황에 과감하게

그 메시지를 연결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이 상황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로서, 성서에는 정치에 관한 어떤 원리적 차원의 특정한 시각이나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시지요? 한 방향의 특징으로 수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쪽이든, 성서의 다양성과 일치성은 오늘-여기에 존재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지요?

쉽지는 않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정의”(개역개정: “정의와 공의”로 번역)라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 노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신약학자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인 오해는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으신다”는 원리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전제하고 작동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를 주장한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둔다”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 역시 이러한 구약의 “공평과 정의”를 이어받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 “디카이오쉬네”를 “의”라고 번역하는데, 철학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공평의 이상,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할 때 차별이 없는 정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체를 통찰해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근본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사회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교회 내부를 위한 문서

여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문서들입니다. 신약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폭넓은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인데,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대상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자체는 교회 내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문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 적용하는 논리를 통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통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바울신학 전공자로서, 바울이 자기 시대의 정치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오늘-여기 존재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에 관해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시지요? 특히 <로마서> 13:1~7는 많은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의 역사적, 문맥적 의미와 그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당시 바울의 시선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바울의 논리는 선명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라”가 바울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도의 신학적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상처받게 하는 게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야단을 쳤습니다. 즉,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이런 바울의 논리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윤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쓴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권세에 단순히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성

기독교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들도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이 기록됐던 고대 사회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로 그대로 끌어오는 것은 위험한 시대착오입니다. 합니 다. 예배 설교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강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리, 실천, 가정생활, 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강좌 라이브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신학교 수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당한 통치 행위를 따르라는 의미이며, 통치 세력과 국민의 관계는 공적·기능적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시스템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지, 통치를 수행하는 사람 개인을 향한 전인격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악한 정권의 사악한 통치에도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통치자나 그런 통치자를 비호하고 섬기는 종교 권력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통치 권력에 저항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권연경 교수가 언급한 책을 인터뷰가 끝난 뒤에 구해 읽었다. 이 책에 의하면, 로마 제국주의 시대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인 로마의 통치자와 행정 관료를 의미한다.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부여한 존재의 선과 악의 의도를 분별하여, 권세를 행사하는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복종하고, 부과받은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흔히 세속의 권력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오해되는 이 부분은,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주의 시대와 통치 구조가 달라진 만큼, 그 맥락과 본질을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

고 적용해야 한다. 지금은 로마 시대와 같은 절대 권력자 대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따라서 국민이 그 정치적 권위를 위임한 정치 지도자 개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임의 내용에 합당한 정부 제도와 통치 행위에 한하여 이를 따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동의하여 만든 헌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선과 악, 약자 등의 개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 제국 당시와 민주주의 사회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의 여러 개념도 시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대의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논의가 있는지요?
 물론 한국 교회에 여러 첨예한 논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절실하게 필요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울의 강조처럼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누가 약자인가, 어떤 것이 선이며 악인가에 대한 시대적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 안팎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성장 과정 자체가 욕망의 표현이었고, 교회의 성장도 욕망의 성장에 비례했습니다. 바울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라고 했음에도, 교회가 “예수 믿고 잘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거나 동행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 성장의 한계에 이르러 거대한 교회가 와해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시도가 사회와의 대화를 피하고, 경계를 만들려고 결집하려는 세력들로 나타

나. 많은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세습 등의 행태들도 이런 경향의 하나일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교회의 분열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동조하면서 교회 안에 맹목적이고 권위적인 체계가 강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영적인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신학을 공부하는 평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책의 소비자들 가운데 평신도가 가장 많습니다. ‘가나안 신자’들도 그런 현상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됨”에 대한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정치에 관한 입장은 어떤 면에서 연속적이고, 어떤 면에서 불연속적 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로부터 오늘-여기의 기독교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기독교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들도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를 중심에 두다 보면 이 원리를 잊게 됩니다. 제가 ‘신혼살림 모델’이라고 설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방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는 방한 칸에서 시작합니다. 유일한 목표는 살림을 늘리고 예배당을 키우는 것이지요. 상가건물 같은 데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임대하면서 교회를 키우다 보면, 자체 건물을 가지는 것이 꿈이 됩니다. 교인이 늘어나 건축헌금을 모아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예배당을 크게 다시

짓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재건축한 다음에는 시골에 별장을 마련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기도원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묘지를 만듭니다. 즉 유일한 교회의 목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 덩치 불리기가 됩니다. 그동안 이 사회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 패러다임이 이제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여기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안에서 의 삶과 정치에 관해, 우리는 신약/성서와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동행은 어떤 의미에서 성서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독교 자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구조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구현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원천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권력을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인 민주주의가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서로의 욕구와 이익을 조절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계로 설계되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민주주의적 공평함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었으면서도 또한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사회와 갈등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사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자체의 철폐를 사회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으며,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 신앙은 정치와 무관하다” 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곧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모든 판단의 근거이자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일 텐데, 그 가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다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신분제도 없고 차별도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정치사회적 원리나 가치로 비추어 거칠게 요약해 볼 때 성서에 드러난 그리스도교 정치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비폭력적이라는 특징을 전제로, 아주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는 방식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바울이 남녀관계나 주종관계 등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대 질서의 틀을 초월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태도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정치적이고 사회 제도적인 가치로 현실화한다면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민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족’은 혹시 기독교의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지요? 좀 더 나아가 지금-여기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이며, 기독교인이 통일과 함께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민족은 복음 아래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는 유대 민족 공동체였으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 약속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는 이방인들에 의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민족은 이처럼 복음 아래에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이루어라”라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셨음을 볼 때, 통일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는 통일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정치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상상하고, 하나 됨을 촉진하며, 다름을 해소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 됨의 원리를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와 약자들과도 함께 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의 이기심을 많이 목격합니다. 곳곳에서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방

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활동을 하거나 사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더 민감해야 하고, 앞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더 급진적인 차원에서 하나 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의 하나됨과 평화는 어떻게 보면 로마가 선전하던 “로마의 평화”와도 겹치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의 평화가 다수의 희생을 깔고 가는 소수의 평화라면, 바울은 하나 됨을 통해 다수가 평화를 느끼는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급진적이어서, 하나 됨, 공평함, 동등함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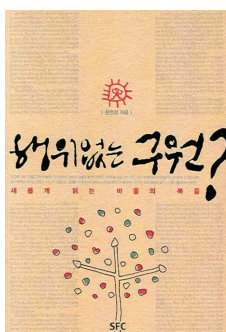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바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과 무관한, 혹은 신앙과 분리될 수 있는 정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 신앙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곧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모든 판단의 근거이자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일 텐데, 그 가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구약의 뼈대이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신 것이며, 예수님과 바울은 “사랑과 배려”로 이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회복된 삶을 살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무일 것입니다. 교회는 대개 사회 지도층의 집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욕망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쏜개어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정된 병원 예약 시간이 되어, 서둘러 인터뷰를 마쳤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서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지상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권연경 교수의 책 4권을 골라 아래에 소개한다.

함글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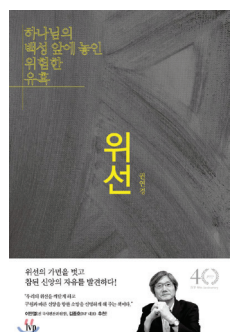
행위없는 구원
바울 서신의 논증을 주해하고 풀이하면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성격과 목표를 다루고, 복음 안에서의 구원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 SFC출판부, 2006



갈라디아서 산책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는 책. 교회의 의식과 삶의 수준에 대한 성찰과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복있는 사람, 2018



내가 읽는 것을 깨닫노
성경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여 해석하는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성경 해석의 새 지평을 보여준다. SFC출판부, 2008



위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성경 속 사례를 통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 IVP, 2018

사역 소식 | 성극팀, 워십무용팀

소망교도소 방문



10월 28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성극팀과 워십무용팀에서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하여, 300여 명의 수용자 형제들과 귀한 주일 예배를 드렸다.

1부에는 이은석 목사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

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기원했다. 2부는 성극팀에서 <순교자 주기철>이라는 제하의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야기를 공연하였고 워십 무용팀의 무용으로 수용자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주었다.

함께한 출연진 모두는 수용자 형제들에게 “지금은 어렵고 격리된 삶을 살지만 형제들이 속한 작정에 주님이 함께하며 모든 근심을 면하게 하여 출소한 형제들이 사회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합심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울

사역 소식 | (사)섬김과 나눔

탈북정착민 쌀 전달



(사)섬김과 나눔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선화)에서는 지난 30일, (사) 섬김과 나눔 재단 주최와 송파경찰서 협력을 통해 송파구 거주 탈북정착민들에게 안정적인 남한생활 정착을 위한 희망의 쌀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송파구 거주 탈북정착민들에게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재단에서 후원해준 쌀 10kg 40포대를 나누며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17명의 탈북민들이 참석하여 직접 쌀을 수령하였으며, 남한 생활에 대한 격려와 이

야기를 나누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탈북민들에게는 송파경찰서의 협력을 받아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쌀 전달을 하는 등 총 40명의 탈북민들에게 쌀을 나누며 마무리 하였다.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교회 가을 운동회에서 1등을 한 4교구에서 10kg 70포를 전달 받아 10월 20일 통일 바자회 종료 후 한민족 공동체에 20포를 전달하였고, 마천복지관에서 송파구 탈북 정착민에게 40포와 교회 출석 너나들이 탈북 청년에게 10포를 전달하는 귀한 사랑나눔을 하였다.

함줄함울

사역 간증 | 스포츠선교부

정신여중고 핸드볼부의 행복한 저녁 식탁



10월 26일(금) 저녁, 소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우와~~대박~~’이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환영메시지와 아름답게 꾸며진 식탁에는 사랑과 정성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이 저녁식탁은 전문선교위원회 스포츠선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신여중고의 핸드볼부가 족들을 위해 준비된 식탁이다.

스포츠선교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찾아가 간식도 전달하고 기도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1년에 1-2번 정도는 바비큐파티를 준비해 그들을 초대한다. 운동에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다.

“잘먹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아이들은 준비된 고기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게, 많이 먹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아이들, 비인기종목의 운동선수로서의 고민을 갖고 있는 아이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교회 스포츠선교부의 응원

격려의 사역은 아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 귀한 식탁을 준비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과 수고와 함께 준비된 저녁식탁은 ‘먹는 것’이상의 의미와 감동과 사랑을 주기에 충분했다.

스포츠선교부

신임 목회자 인사

다음 세대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를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화수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렵지만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와 더불어 더욱 다음 세대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한 목사 / 청년부 디렉터

신임 목회자 인사

출석 20년 만에 사역자가 된 설렘으로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EM 어린이 예배 부서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지인 전도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 출석한 어연 20년이 넘었는데, 지난해 사역자가 되서 예배에 참석하니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부족한 힘이지만, 주님의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사역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인 전도사 / EM

사역소식

2018년 학원선교부 가을세미나



10월18일(목) 학원선교부 가을세미나가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굵이 굵이 빨강, 노랑 아름다운 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했고, 학원선교부 가족

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신교회 권복음 목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시간과 공간과 삶 속에 함께 하기로 다시금 다짐하였고, 힘겹고 고단하고 아픈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정신여고 1개 반을 대상으로 매월 1시간 성경수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주님의교회의 학원선교사역은 현재 기도어머니(월 1시간, 년 9회, 정신여고 학생들과 '기도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나 힘들고 아픈 청소년 시

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77명, 사랑어머니(정신여중 2학년 대상 '나눔과 섬김' 수련회 '인성훈련'시간에 학생들을 만나 상담사역을 하며, 1:1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40명이 함께 참여하여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의 사역을 통해 정신여중고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해본다.

학원선교부

사역 간증

청량리 밥퍼에 다녀와서



11월 첫째 월요일 5일에 청량리 밥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학교 학과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밥퍼를 알게 되었습니다. 밥퍼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 노숙자분 등 하루에 한

끼를 드시지 못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무료로 대접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사랑운동입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 봉사자들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그리고 배식하는 손길을 통해 그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밥퍼를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과 섬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4번의 밥퍼를 다녀오면서 우리의 섬김이 단순 봉사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밥퍼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이기에 정말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생명과 같은 곳에서 밥을 나누고 또 함께 먹음으로써 생명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채워지는 것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곳에서 배식이 시작되기 전 같이 간 학우들과 함께 축복의 찬양도 불렀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의 힘을 믿기에 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했었습니다.

밥퍼를 하면서 작은 손길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쁜 삶 가운데서 사회의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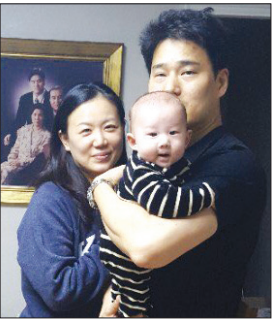
주찬양 자매 /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3학년, 주님의교회 중등부 교사

아이들이
**김라은 아기**

2018년 6월 12일생

1. 지혜롭고, 사랑 받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 라은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3. 라은이의 이름과 같이 늘 열매를 맺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빠 김준성 / 엄마 김아영 2018년 10월 28일 3부 예배

**성민겸 아기**

2018년 7월 5일생

1.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2. 날마다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민겸이가 되게 하소서
3.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퍼져 나가게 하소서

아빠 성의찬 / 엄마 강선규 2018년 10월 28일 3부 예배

**국휘근 아기**

2018년 7월 15일생

1.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꿈을 찾고,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을 주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3. 주님에게 의지하여 자신감 넘치며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선을 이루며 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국승명 / 엄마 김효정 2018년 10월 28일 2부 예배

입교와 세례

2018년 10월 28일 4부 예배에서 하반기 입교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세례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숙하고 신비로운 의식이다. 아래는 이날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교인들이다.

입교자 어진주, 김가은, 김희주, 박솔지, 박지훈, 이승환, 김경하, 김성은 (8명)
세례자 김소연, 김종복, 신혜선, 유주희, 이승현, 이완희, 이준기, 정영욱
이우주, 민경희 (10명)

알립니다

2019년 <함글함글>을 새롭게 빛낼 역량 있고 젊은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글함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젊고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글함글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2018

교회와 세상 향한 아름다운 섬김

사역박람회

“당신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1월 18~25(주일) 2주간 / 1층 로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주님의교회

은퇴안수집사와 함께하는 2018년도 안수집사총회

2018년도 안수집사 총회가 11월 18일 주일 오후 4시 지하식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입피택안수집사환영회, 차기회장단 선출, 청지기봉사 축하, 김화수 담임목사님 신년비전 설교, 식탁 교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은퇴안수집사의 특별초청을 정례화, 은퇴자에 대한 예우, 함께 동역하는 건 등을 논의합니다. 많은 안수집사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알립니다**1. 광야의교회 파송신청 및 준비모임**

파송신청 : 10/31까지, 1층 사무실

준비모임 : 11/3, 10, 17(토) 10:30~12:00, 3층 성경교실

11/25(주일) 14:00~15:30, 광야의교회

(준비모임이 세미나를 겸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2019 대학 수험생 안내

① 수험생 축복의 시간: 11/11(주일) 1부예배시

② 수능일 학부모기도회

일시 : 11/15(목) 하늘비전교회 오전8:30부터

③ 문의 : 박국이전도사 (010-9186-8507)

3. 제19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11/18, 25, 12/2 매주일 오후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 교역자실(4층)

문의 : 허준목사 (010.5450.5308)

4. 교회 사무장 모집 공고자격

사무행정 경력과 역량이 있는 65세 미만의 기독교인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있는 경우)

접수 마감 : 11/25(주일) 문의 : 교회 사무실(02.416.5181)

5. 교회 영상간사 모집(1명)

서류마감 : 11/20(화)

자격 : 영상제작 및 운용 “경력 3년이상” 인 분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첨부) 1부 및 자격증사본

문의 : 교회 사무실 (02.416.5181)